

지역 소식

정읍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특성 맞춘 SNS 운영 '호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맞춤 서비스 제공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 특성에 맞춘 SNS 운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복지관은 SNS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이하 '플러스 친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플러스 친구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사진 첨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문자음성전환)첨부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샘골보건지소는 운영에 앞서 오는 27일에는 특강도 갖는다.

강사는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수연 교수다.

권교수는 이날 '저나트를 예방 관리'를 고민해 식생활의 문제점 등을 짚어 볼 예정이다.

샘골보건지소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유연성 증진, 균형 강화 등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샘골보건지소(☎539-6751~2)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식품가공기능사 36명 자격증 취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식품 기공분야 전문인력을 중점 양성하기 위해 주진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에서 최종적으로 3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3일 전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격취득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품기공 분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전문교육을 추진했다.

그 결과 1차 필기시험에 63명이 응시해 40명이 합격했고, 2차 실기(최종)시험에서 44명이 응시해 이 중 36명이 합격의 기쁨을 얻었다.

응시생들은 그간 바쁜 영농철 농사일에 매진하면서도 시간을 조개 학습해 값진 결과를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제계적인 가공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를 양성해 가공업 철학 활성화와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공전문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가공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매년 1회 정기시험이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농기센터, 오디봉 활용 힐링체험교육

기준 연 이용 인원은 1만98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이는 SNS(플러스 친구) 운영과 방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온 결실이다.

또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인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연

인원 역시 7602(5월 말 기준)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순회 흥보'

활동을 펼침으로써 장애인들이

전용 시설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기, 오디 봉 양갱 만들기 등 다양한 양감 산물 콘텐츠가 적용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술센터는 힐링체험교육에서 오디 봉·오디 짬 시식도 병행돼 부인대표 작목인 오디봉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 봉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안 침봉 오디를 맛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종합적인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의회, 정례회… 21건의 의안 27일까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부안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과 관내 문화 소외 계층인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안침봉연구소 힐링체험장에서 오디봉을 이용한 힐링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힐링체험교육은 청정 누에특구 지역 내 침봉미실길 걷기 체험과 침봉연구소내 시범포장 오디 짬 체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서 기술 전수된 오디 고형 짬 만들기,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봉잎쿠키 만들

소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오세웅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 간 제2대 부안군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결의안 제택, 출산장려금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부안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새만금 관광부지 조기 개발, 새만금 비산 먼지 문제 등 관광산업화와 민생 혁신 해결을 위해 집행부 및 중앙 정치권과 연계를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영농철 맞아 농가 일손 돋기 '총력'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온 가운데 정읍시가 농가 일손 돋기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특히 이 달을 농촌 일손 돋기 중점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농생명밸리과)와 읍·면사무소,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지원 청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손 돋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시민)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연계해 효율적인 일손 돋기를 지원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도 지난 1일 일손 돋기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김 시장은 이날 북면 노송마을 인근에서 농생명 협력과 기술지원과, 북면 직원들과 함께 매실(2000㎡) 수확을 도왔다.

김 시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많은 농가에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직자는 물론 기관·단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일손 돋기에 적극 나서 줄 즐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